

공동체의 창의적 지식 활용하기*

주세페 비아지니 **

초 록

창의지식재단(The Creative Knowledge Foundation: 이하 CKF)은 유네스코의 7개 창의 클러스터 중 하나의 클러스터 또는 클러스터 간의 회원도시들이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협력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 지식의 역할과 ‘창의적인 사람들’의 작업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내에서 “미래는 ... 당신의 발 아래 있다”라는 CKF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사례 연구들을 제시함으로써, CKF가 연령, 종교,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응집력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현행 사업들은 창의 클러스터 전반에 걸쳐 모든 공동체에게 친숙한 보편적인 개념을 다루는 반면, 플랫폼의 유연한 사용은 대상 공동체의 우선순위와 요구에 더 잘 맞는 사업의 국내적 및 국제적 변형을 가능하게 한다.

“일하는 손”(2017년~), “장인 치즈”(2019년~), “창의도시의 빵”(2018년~) 프로젝트들과 이들의 현재 변형 프로젝트들은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의 실제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위한 공동 계획으로서 “실을 잇다—문화를 잇다”의 초기 단계를 강조할 것이다.

키워드: 창의적 지식(CK), 창의지식 플랫폼, “미래는 ... 당신의 발 아래 있다”, 클러스터 간 사업, 협력, 사회적 응집력.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주에서 열린 ‘UCCN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연례회의’(UCCN Crafts and Folk Art Sub-network Annual Meeting)에서 발표되었다.

** 주세페 비아지니(Giuseppe Biagini)는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 있는 창의지식재단의 창립자이다. 그는 피사 대학교(이탈리아) 컴퓨터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이후, 그는 여러 회의와 2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언—「산 크리스토폴 데 라 카사스 선언」(Declaration of San Cristobal de La Casas, 2018)과 「카라라 선언」(Declaration of Carrara, 2021)—을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또한 창의지식 플랫폼을 개발했다.

1. 창의지식재단¹

창의지식재단은 미국 501(c)(3)에 속하는 비영리단체로, 비록 수천년은 아니지만 수세기에 걸쳐 행동 및 장소 특정적 방법론을 통해 다듬어진 공동체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 ‘창의적인 사람들’—세계 전통지식의 살아있는 지킴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의적 지식(Creative Knowledge: CK)이라는 개념은, “... 자연의 법칙에 적응하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으며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워 온 전통지식에 기반한 관행들의 현대적 진화...”를 말한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구밀도의 증가로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에 비추어 볼 때, CK 체계는 현대세계에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지식재단은 CK 체계를 보호하며, 창의적인 사람들(예: 농부, 요리사, 장인, 예술가 등)이 그들의 고유한 공동체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UCCN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모델과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모델과 도구들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과 목표들을 강조하고자 몇몇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2. “미래는 ... 당신의 발 아래 있다” 모델과 창의지식 플랫폼

창의지식재단은 재단의 사명을 달성하고 이행하기 위해 창의지식 플랫폼(Creative Knowledge Platform: CKP)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미래는 ... 당신의 발 아래 있

1. 2022년 9월 16일자로, 국제전통지식연구재단(International Traditional Knowledge Institute Foundation, ITKIF)은 재단의 사명 선언문에 있는 창의적 지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그 명칭을 창의지식재단으로 바꾸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creativeknowledge.foundation/>을 참조.

다”(THEFUTURE)라는 사업 포맷을 정했다².

2.1. “미래는 … 당신 발 아래 있다”(THEFUTURE) 모델

THEFUTURE는 지역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지역이나 지역사회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파로협약」(Faro Convention, 2005),³ 「벤토테네 디지털 선언문」(Ventotene Digital Manifesto, 2017-2021년),⁴ 그리고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의해 표명된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다.⁵

이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기록 및 미래 세대로의 전승을 위해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디지털 문화’를 증진한다.
- 지역사회를 회복탄력성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모범 사례를 확인한다.
-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발전 모델을 공동으로 만드는 데 정부, 시민사회, 학계, 창의적인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2. CKF와 베니핏 기업 코오르(Benefit Company KOOR,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는 창의지식 플랫폼(CKP)과 “미래는 … 당신의 발 아래 있다”라는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후자의 프레임워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ilfuturosottoituoipiedi.org/en/who-we-are/>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파로협약」(2005)의 전문은 <https://www.coe.int/en/web/culture-and-heritage/faro-convention> 참조.

4. 「벤토테네 디지털 선언」(2017-2021)의 전문은 <https://www.diculther.it/blog/2021/09/15/manifesto-ventotene-digitale-loccasione-digitale-per-la-cultura-e-leuropa/>.

5. <https://sdgs.un.org/goals> 참조.

이 프레임워크는 4개의 주요 단계로 나뉘어진다.

- 1단계—영역 지도 그리기. 지역 지식의 보유자들과 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들의 지도를 작성하여, 이 영역의 전통적이고 창의적인 자산들을 기록하고, 지역 유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2단계—헤리-텔링(지역 유산 + 스토리텔링). 창의적인 사람들(누가)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수집하고, 그들의 활동(무엇을)과 창의적인 자산들이 발전되어 온 환경(어디서)을 서술하는 웹 기반 사업—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범위—을 개발하여 특정 영역과 독특한 지역 유산을 증진시킨다.
- 3단계—지역 창의지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창의적인 사람들을 세대 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기관들과 지역 창의성의 보유자들을 참여시킨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의 목표는 디지털 소통 언어(경험 기반 학습(learning-by-doing), 해커톤,* 역할 놀이 등)의 사용과 결합된 대화형 학습(interactive learning) 방법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4단계—지역 발전을 위한 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의 공동 창출. 이 특정 단계는 창의적인 사람들, 시민사회, 학계 및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영역에서 수행하고 싶은 제안을 이끌어낸다. 이에 대한 조치들은 해당 영역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상향식 접근법), 앞서 언급한 이 모델의 3가지 단계에서 드러난 우선순위에 대응하며 SDGs와도 일치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의 2단계와 3단계를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지식 플랫폼의 사용이 필요하다.

* ‘해커톤’은 hack(‘만들다, 파고들다’라는 뜻)과 marathon(장시간의 달리기)의 합성어로, 혁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직한 행사를 말한다.

2.2 창의지식 플랫폼

창의지식 플랫폼(CKP)은 사용자들을 안내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특정 영역을 분석하는 방법, 해당 영역의 고유한 창의적 자산들을 부각시키는 방법, 하나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허브’에 멀티미디어 콘텐츠(문자, 비디오, 이미지, 음성 녹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 지역 창의지식의 실천가들을 참여시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는 방법, 보다 공평한 방식으로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그 요구를 공동체의 고유 영역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사용자들이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원격으로 올릴 수 있는 공동 웹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CKP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관리한다. 사업 소유자(사업 리더)는 그림 1과 같이 이 플랫폼의 작업 흐름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온라인으로 평가하고 게시한다.



도표 1. CKP의 작업 흐름 및 사업 관리

CKP는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산출물과 도구들을 제공한다.

- 멀티미디어 콘텐츠(이야기, 이미지, 비디오 등)를 보관할 디지털 도서관.
- CKP에 있는 참여자 프로필을 전용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연결시키는 QR 코드.
- 인터랙티브 전자 소책자와 책들을 제작할 도구.
- 수집된 지리공간 데이터를 지역이나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지오태그(geo-tagged)된 웹 기반의 대화형 지도.
- 지식 보유자들의 위치와 지역의 관심 지점(내 주변).
- 사용자와 전문가들이 해당 영역에 대한 특정한 관심 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커톤을 조직하고 모니터링하는 도구.

3. THEFUTURE와 CKP를 적용하기

이번 장에서 우리는 THEFUTURE를 적용하고 CKP 도구를 사용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일부인 도시와 지역에 이익을 주는 3개의 사업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 사례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목표와 부합되는 주요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 선별되었다.

- 1) 창의성과 혁신의 거점 개발에 기여하고, 문화부문의 창의적인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며, 공동체가 자신의 독특한 문화자산들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한다(카라라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와 협력하여 CKF가 발전시킨 “일하는 손” 프로젝트).
- 2) 문화와 창의성을 지역 발전 전략과 계획에 통합시킨다(베르가모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와 협력하여 CKF가 발전시킨 “장인 치즈” 프로젝트).
- 3)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천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투손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와 협력하여 CKF가 발전시킨 “창의도시의 빵” 프로젝트).



3.1. “일하는 손” 프로젝트와 「카라라 선언」

카라라 시와의 협력은 2017년 창의지식재단(CKF)이 카라라 시의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가입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고, THEFUTURE 프레임워크의 첫 단계(“영역 지도 그리기”)는 유네스코에 성공적인 서류 제출과 더불어 『일하는 손: 카라라 대리석』(Hands at Work: Carrara Marble)⁷의 2개 국어판이 출간되면서 완료되었다.

2020년 카라라 창의도시는 CKF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단체들의 지원 하에 “일하는 손”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인 지역 예술가 및 장인들의 작업과 방문 일정을 설명하는 9

7. ISBN 978-88-8341-679-8 (2017). 이 책의 프리뷰는 <https://www.dropbox.com/s/p0tia1ckdvyst1/Carra-Marble-Preview.pdf?dl=0>에서 볼 수 있다.

개의 비디오와 1개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준비를 발표하면서,⁸ THEFUTURE 프레임워크의 2단계(“헤리-텔링”)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의 나머지 두 단계(지역적 및 국제적)는 현재 카라라에 살고 있고 카라라 대리석을 사용해 작업하는 모든 예술가와 장인들의 지도를 그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⁹

창의지식 플랫폼으로 구축된 “일하는 손”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카라라 창의도시와 지역 비영리단체, 적극적인 시민들과 교육단체들은 지역 예술가와 장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하며, 그들이 매일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카라라의 독특한 문화자산이 제공하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¹⁰

“일하는 손” 프로젝트는 창의공동체 내 추가 조사를 촉발시켰고, 2021년에 카라라 시는 지역 실무단을 구성하여 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예술가와 장인들의 역할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THEFUTURE의 4단계(“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의 공동 창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실무단은 지역 예술가와 장인들(전문가와 초보자 모두), 교육기관(미술 아카데미, 젠틀레스키 연구소), 시민사회와 지역 노동조합(콘파르티지아나토, 전국 공예연맹, 상공회의소, 유네스코 카라라 클럽, 성곽강화연구소, 이탈리아 유산총국, APS 올트레), 지역 재단(카라라 카사 디 리스파르미오 재단, 마르모 재단), 적극적인 시민들, 기업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향식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된 집단적 논의에서 얻어진 결과는 바로 카라라의 창의성 포럼(2021년 9월)에서 발표되었고,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이탈리아 창의도시들에 의해 채택된 「카라라 선언」이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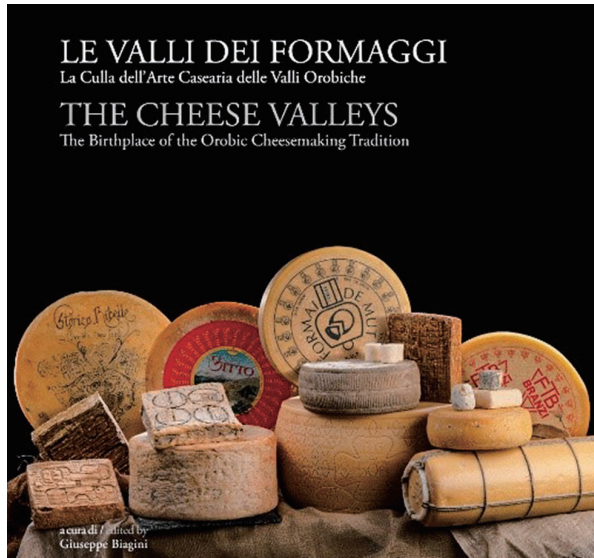
다음 단계는 이 선언의 내용을 다른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회원들과 공유

8. <https://fb.watch/8OjqGy6sV9/> 링크에 카라라의 비영리 협회 APS 올트레-스투디 아페르티가 만든 다큐멘터리 전체에 대한 프리뷰가 있다.

9. <https://ckp.creativeknowledge.foundation/view-projects/18:20/en>.

10. <https://ckp.creativeknowledge.foundation/view-projects/18:20/en?section=members>.

11. <https://en.unesco.org/creative-cities/events/carrara-reunites-italian-creative-cities-creativity-forum> and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86fQP6AtakSozG7EDV15qzgitKMbVTKjmKxmtQkQuaWBGMYV9fi45ZahyH3TMz3Ul&id=100603965306246.



하는 것이다.

CKF는 프레임워크와 플랫폼의 적용을 통해 카라라 시정부, 시민사회, 학계, 비영리단체와 적극적인 시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하였다.

- 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예술가와 장인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창의성을 지역 발전 전략과 정책에 통합(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추동자로서 「예술과 공예에 관한 카라라 헌장」과 예술가와 장인들의 역할에 관한 「카라라 선언」의 공식적 채택).
- 채택된 정책과 전략의 실행을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추가 조치에 대한 공동 기획. 그 한 가지 사례가 예술가와 장인들이 역사적 도심에서 거주하고 작업하도록 장려하는 “카라라 시-큐라”(Carrara si-cura)¹²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새로운 창조공간(전시실, 실습실 등)을 확

12. https://web.comune.carrara.ms.it/archivio10_notizie-e-comunicati_0_4136.html.

대하고 역사적 도심 생활에 공동체 참여가 늘어나는 데 따른 지역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다.

3.2. “장인 치즈” 프로젝트

카라라와 마찬가지로, 베르가모 시와 CKF 간의 협력은 이 도시가 UCCN(미식 클러스터)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2018년에 시작되었다.

신청에 관련된 지역의 규모, 특히 3개 주(베르가모, 레코, 손드리오)에 걸쳐 있는 산악 지대인 오로빅 계곡이 여기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CKF는 즉시 “영역 지도 그리기”를 위한 전략과 운영위원회를 수립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정보 수집을 위해 CKP를 이용하여 『치즈 계곡—오로빅 치즈 제조 전통의 발상지』(The Cheese Valleys—The Birthplace of the Orobian Cheesemaking Tradition)라는 책을 출간했다.¹³

지역 전문가들은 오로빅 계곡의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특성들에 관한 챗터를 준비하는 한편, 지식 보유자들을 인터뷰하여 왜 “... 치즈가 단순한 재료들의 혼합이나 ... 맛이나 풍미 세트가 아닌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기록했다. “치즈 제조는 인간과 동물의 지속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사람들, 전문 지식, 전통적 관행으로 만들어진 인류학적 및 문화적 유산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오로빅 계곡 사람들의 시간과 삶을 나타내 왔다.”

2019년 10월, 베르가모 시는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으며, 베르가모 지방자치단체, 산 마테오 협회와 CKF는 신청서에서 치즈 공동체가 제안한 사업들을 착수했다. 이 사업에는 1) 지역 치즈 가치사슬 구성원들의 스토리텔링(2단계—“헤리-텔링”), 2) 전문 교육 과정(3단계—“지역 창의지식에 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3) 독특한 지역 농업 실천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 지구를 규정하는 앱 준비(단계 4—“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의 공동 창출”) 등이 포함되었다.

13. SBN 978-1-7346136-1-2 (2019). A preview of the book is available at <https://www.dropbox.com/s/coiuid2gsi2a1c/Preview%20Book%20%2B%20Ferdyn%20Digitale.pdf?dl=0>.

“장인 치즈” 프로젝트¹⁴가 활성화되었고, 이 지방의 독특한 장인 치즈들 각각의 샘플이 하나씩 기술되었다.

이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 지식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과정의 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런 이유로, 지역 직업학교(베르가모 커뮤니티 칼리지인 Azienda Bergamasca Formazione), CKF 그리고 베네팢 기업 코오르가 협력하여 새로운 전문 과정인 ‘유제품 공급사슬에서 제품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자’ 과정이 개발되었다. 이 과정은 유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된 고유한 지역 지식을 전문기술자에게 교육하고, 다음 분야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새롭고 전통적인 고품질의 유제품 개발.
- 지역 유제품의 역사와 독특성 브랜드화 및 활용.
- 지역 관광 상품에 부합하는 홍보 전략 규정.
- 혁신적인(소셜 미디어 기반) 홍보 도구 사용.

그리고 또 다른 단계의 사업이 지역 학교와 함께 해커톤을 추진하면서 개발되었다. 그 첫 번째 행사에는 3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이후의 회복 국면에 있는 오로빅 계곡의 두 영역(세리아나 계곡과 베르가모 호수)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탄력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여러 학문 분야의 팀들로 나누어진 참가자들은 여러 아이디어들을 논의하고, 그 지역에 대한 SWOT 분석을 개발하고, 그 지역을 좀 더 회복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창업을 위한 사업 계획을 준비했다.¹⁵

이 행사의 가장 도전적인 목표는 지역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농업 및 음식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적인 ‘베르가모 및 오로빅 계곡의 농업지구’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지구는 오로빅 계곡의 독특성과 일치하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장인 제품들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이 지구 사업은 “장인 치즈” 프로젝트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며,

14. <https://www.artisanalcheese.org/>.

15. 이 행사에 관한 비디오는 <https://youtu.be/0xvYdnk9cWQ> 참조.

모델의 완전한 적용이다(중앙정부에 대한 요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필요하다).

3.3. “창의도시의 빵” 프로젝트

“창의도시의 빵”(Breads of the Creative Cities, BoCC) 프로젝트는 THEFUTURE와 CKP의 목표들 중 가장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BoCC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다양한 창의 클러스터(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 예술, 음악)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연령, 종교,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질적인 공동체(단일 창의도시에 속한 공동체)가 아닌 전체 UCCN에 속한 공동체의 창의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시도이다.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BoCC는 클러스터 간의 대화 구축을 그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두번째 목표는 참여한 유네스코 창의도시(UNESCO Creative Cities, UCC)들과의 수년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발된 ‘사회적 응집력’의 모범 사례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이후¹⁶ CKF와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투손은 UCCN 전체를 포괄하는 최초의(그리고 유일한) 클러스터 간 사업을 조직하고 지원해 왔으며, 현재 그 네 번째 사업이 진행 중이다.¹⁷

아마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 이유는 BoCC가 정의상 포괄적이고, 참여하는 모든 UCC가 이해하기 쉽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빵은 풍요와 기적, 관대함과 나눔의 상징이며 ... 빵은 영양

16. 이 사업은 제12차 UCCN 연례회의(2018년) 기간 중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 개최된 ‘빵의 날’에서 유래되었다.

17. ‘창의도시의 빵’은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명시한 200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과 생계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요리 문화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 준비 방법과 관련 전통들은 세계만큼이나 다양하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 이후, 주최자들은 ‘빵’의 정의를 “현지 밀가루를 사용하고 지역사회의 유산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지의 모든 중요한 음식”으로 확장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가능한 한 보편적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¹⁸

이 프로젝트를 구별하는 또 다른 중요 키워드는 유연성이다. 이 프로젝트의 형식은 UCC들의 고유한 공동체 특성, 사용된 재료, 그리고 ‘빵’ 제조에 적용된 기술을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

18. 많은 UCC들은 ‘빵’을 그들의 문화에 특유한 산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확대하여 빵의 기본 재료—밀가루—를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모든 종류의 밀가루(과일 기반, 생선 기반, 곡물 기반 등)와 모든 종류의 준비 기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BoCC는 참여 UCC에 대한 설명, 지역 ‘빵’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설명, 최소 한 명의 제빵사에 대한 이야기, 빵 제조법 발표 등을 요구하는 단순한 사업에서 더욱 더 복잡한 사업으로 지난 수년에 걸쳐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2022년도 사업 이후, 우리는 빵 가치사슬의 전체를 고려해 왔다. 다시 말해, 전통 재료를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종자를 고르는 농부, 곡물을 필요한 밀가루로 갈아주는 제분업자, 전통을 해석하여 현대인의 입맛과 지역 전통에 맞게 만드는 제빵사 등등. 이 프로젝트의 첫번째 주요 진화는 2019년 이탈리아 파브리야노에서 열린 제13차 UCCN 연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주최측은 전용 라운드테이블에서 여러 UCCN 회원들과 BoCC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이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이 라운드테이블에서 우리는 참여 도시들을 위해 더욱 포괄적으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그 문제들로는, 지역 제빵사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 제빵사, 제분업자, 농부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BoCC 주최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 참여 UCC들에게 우선순위인 사회 문제 해결 등이 있다.

그 결과, BoCC 조직 구성원이 제빵 공동체를 방문하여 제빵사, 제분업자, 농부들의 작업을 인정하는 ‘브레드 미팅’(Bread Meeting)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CKF와 주최 UCC가 공동 발행하는 인증서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방문은 제빵사, 제분업자와 농부들을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능한 경우 지역 빵 전통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2019년에 이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이탈리아(알바, 볼로냐, 카라라, 파브리야노), 멕시코(푸에블라, 산 크리스토탄 데 라스 카사스), 폴란드(크라쿠프), 튀르키예(가지안테프), 미국(퍼두커, 투손) 등 여러 UCCs를 방문했다.

제13차 UCCN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세번째 권고사항인 참여 UCCs에게 우선순위인 사회적 문제 해결은 제14차 UCCN 회의(2022) 기간 중 브라질 상투스에서 제출된 BoCC 프로젝트의 세 번째 사업에서 더욱 명백해졌다. 세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모범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 1) 산토스 시는 실직 여성들이 스스로 기본적인 식량을 마련하는 방법과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으로 자신의 빵집을 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지역의 비영리단체인 ‘연대 기금’(Fundo de Solidariedade)의 학생들을 소개하는 비디오 인터뷰 세트를 준비했다.¹⁹
- 2) 튀르키예의 가지안테프 시는 BoCC가 고대 ‘하브라니 밀’을 현지 생산 주기에 재도입하는 사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 선정된 농가에 국제적인 인지도를 부여한 사례를 발표했다.²⁰
- 3) 스페인의 데니아 시는 BoCC가 “공동체의 유산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대 전통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 있는 자극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CKF와 투손 UCC는 지금 이 프로젝트의 네번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15차 UCCN 회의(2023) 기간 중 이스탄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BoCC 사업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1)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시는 7개의 터키 UCCs와 함께 공동 사업을 준비하고 각 지역의 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의미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각 참여 도시로부터 제빵사, 제분업자, 농부를 각각 1명씩 이스탄불로 초청해서 빵을 만들고, BoCC 라운드테이블 기간 동안 그 빵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함께 빵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응집력을 구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2) 멕시코의 푸에블라 시는 공용 화덕에서 구운 빵에 도장을 찍는 오랜 관행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한 메뉴얼을 제작하고, 이 개념을 전통 빵의 명맥을 잇는 각 UCC의 제빵사를 인정하는 인증 프로그램의 기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3) 한국의 진주시는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고유한 곡물 유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빵

19. <https://www.youtube.com/watch?v=54WTKUHZBuc&feature=youtu.be> 그리고

<https://www.youtube.com/watch?v=b5S3Xr032I8>.

20. <https://www.youtube.com/watch?v=rKV1XoaF5rA>.

가치사슬을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농부와 제분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BoCC의 사업들을 통해 우리는 BoCC 프로젝트가 THEFUTURE의 네 단계를 완전히 채택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즉, BoCC는 참여 UCC에게 지역 밀가루로 만든 중요한 문화 음식이 무엇인지 연구하도록 제의함으로써 이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개념을 사용하고(“영역 지도 그리기”), 그 다음 지역의 빵 가치사슬의 구성원들을 인터뷰하도록 요청하고(“헤리-텔링”), 빵 전통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는 지역 교육기관들에 대한 설명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지역 창의지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 현재 2023년판 프로젝트에서는 신규 및 기존 BoCC 회원들에게 빵 전통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의 공동 창출”)을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THEFUTURE의 4단계 적용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제15차 UCCN 회의 기간동안 그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들이 논의되고 발표될 것이다.

3.4. “실을 잇다—문화를 잇다” 프로젝트²¹

“창의도시의 빵”의 경험을 바탕으로, CKF는 “실을 잇다—문화를 잇다”(Connecting Threads—Connecting Cultures, CTCC)라 불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이 도시들은 어떻게 실, 섬유, 직물이 창의공동체와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 논의하는 데 즉각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일차적으로 지지를 보낸 도시들은 코모(이탈리아), 나소(바하마 연방), 퍼두커(미국), 그리고 산타페(미국)이다.

21. 참여사업을 정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최종 제목은 사업의 하위 주제를 주도하는 UCC들에 의해 결정된다.

CTCC 프로젝트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 즉 신체를 보호하고 편안함을 얻기 위해 몸을 덮는다는 점에서 BoCC와 동일한 기본 아이디어를 따르고 있다. 실, 섬유 및 직물이 결합된 의복은 착용자의 문화와 지위를 강력하게 나타낸다. BoCC에서 ‘뺑’이 한 공동체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실, 섬유, 직물’도 그렇다. ‘뺑’과 마찬가지로, ‘실, 섬유, 직물’의 사용, 변형 및 준비는 ‘세상만큼이나 다양하다.’

각 참여 UCC는 이 일반 주제의 특정한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음과 같이 일부 도시들이 관심을 표명했다.

- 코모 UCC는 어떻게 패션이 전통과 창의성, 공예 솜씨 및 실용적인 용도로 정의되는 문화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나소 UCC는 어떻게 젊이 인종, 성별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국내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연결시켜 왔는지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공동체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초기 실무단을 완성하기 위해, ‘실, 섬유 및 직물을 착색하기 위한 천연 염료’와 ‘실, 섬유 및 직물의 재사용’에 대한 접근방식을 다룬 UCCs의 참여를 기대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시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공동체의 종종 방치되어 있는 문화자산의 발견과 평가에, 그리고 해당 문화 부문의 창의적인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위한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THEFUTURE와 CKF가 어떻게 성공적인 모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했다. 우리는 THEFUTURE가 전지구적 수준의 동질화에 의해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전통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어

떻게 문화와 창의성을 지역 발전 전략과 계획에 통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 사례들은 연령, 종교, 성별, 인종 및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동체들을 포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목표와 사명을 온전히 반영하
고 있다.